

#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정윤주(Yun-Joo Chyung)<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In order to expand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possible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s. The subjects were 272 6th graders residing in Seoul. It was found that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higher psychological control was related to higher levels of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withdrawal, and aggression. No significant sex difference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lthough all of the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each of the behavior problem variables were somewhat higher among boys than among girls.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acceptance were found to be a significant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depression, a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aggression.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peer acceptance could function as a protecting factor for children who perceive their mothers to be psychologically controlling.

**Key Words** : 심리통제(psychological control), 또래수용도(peer acceptance),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sup>1)</sup> 서울법원어린이집 원장

**Corresponding Author** : Yun-Joo Chyung, Seoul Court Daycare Center, 1701-1 Seochodong Seochoku, Seoul 137-745, Korea E-mail : yjchyung@hanmail.net

## I. 서 론

자녀양육방식은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수용과 통제가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애정, 관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통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 노력의 일환으로서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규범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다(Mccoby & Martin, 1983).

양육방식에 대한 연구는 부모가 수용과 통제 행동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자녀 양육방식 유형을 구분하고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사회적 행동과 적응 양상이 부모의 양육방식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형론적(typological) 접근에 의해 많이 수행되었다. 즉, 수용과 통제 차원에서 모두 높은 수준인 권위있는 양육유형이 수용은 낮으며 통제만 높은 권위주의적 유형, 통제는 낮으며 수용만 지나치게 높은 허용적 유형, 수용이나 통제가 모두 낮으며 자녀 양육에 소홀한 방임적 유형보다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Baumrind, 1989; Mccoby & Martin, 1983; Steinberg, 2001). 그런데 이처럼 수용 차원과 통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자녀양육 유형을 구분하는 유형론적 접근으로는 양육방식을 구성하는 각 차원과 아동의 적응 및 발달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고(Darling & Steinberg, 1993),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양육방식 구성 차원들 각각을 개념적으로 명료화하고 이들이 독립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자녀양육방식을 구성하는 차원들은

모두 아동 발달 및 적응과 관련되지만 차원마다 아동 발달 및 적응의 다양한 영역과 관계되는 정도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e.g., Gray & Steinberg, 1999)가 있다.

자녀양육방식을 구성하는 차원을 개별적으로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연구 경향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통제 차원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로 구분된다는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Baumrind, 1967; Schaefer, 1965),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부모 통제 유형이 혼용되었고 그 결과 부모의 통제가 아동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Barber, 1996; Barber, Olsen, & Shagle, 1994). 이에 대해 1990년대에 들어서야 문제 제기가 되었고 부모의 통제를 행동통제와 심리통제라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Barber, 1996).

Barber(1996)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통제는 부모가 아동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 등 아동의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영역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로서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이나 규칙 준수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행동통제와는 구분되며, 심리통제와 행동통제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부모의 통제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들은 심리 통제를 행동통제와는 구분되는 변수로서 다루고 있으며, 심리통제가 행동통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Barber & Harmon, 2002;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즉, 부모의 행동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외현화 행동문제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심리통제는 외현화 행동문제 및 내현화 행동문제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arber & Olsen, 1997; Eccles, Early, Frasier, Belansky, & McCarthy, 1997; Gray & Steinberg, 1999; Morris, Steinberg, Sessa, Avenevoli, Silk, & Essex, 2002).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에 대한 공격성이나 약물 사용, 비행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어머니는 그러한 행동문제가 없는 아동의 어머니보다 심리통제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희화, 2003;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Hart, Nelson, Robinson, Olsen, & McNeilly-Choque, 1998; Herman, Dornbusch, Herron, & Herting, 1997; Pettit 등, 2001), 부모의 심리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시험 불안 등의 불안증상이나 우울증상 및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도현심, 1996; 이민식, 1999; Pettit 등, 2001; Siqueland, Kendall, & Steinberg, 1996).

이상과 같이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간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은 부모의 심리통제 개념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통제 영역에서의 최근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Barber, Bean, & Erickson, 200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의 심리통제라는 개념이 독립적인 변수로 인정받고 연구된 기간이 짧은 만큼 이 구인(construct)의 개념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심리통제 관련 연구 결과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점으로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 발달 및 행동문제나 적응 간의 관계가 다른 자녀양육 변수들에 관한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심리통제를 비롯한 자녀양육 변수들과 아동 발달 및 행동문제나 적응 간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원인으로서 중재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어떤 특성을 가진 정도에 따라 부모의 심리통제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다면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가 강한 경우와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혼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Petti & Laird, 2002; Rubin & Mills, 1991),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 변수로서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Morris 등,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이상에 기술한 바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제기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관련되는지를 고찰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 개념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를 중재할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과 또래수용도를 고찰하려고 한다. 아동의 성은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고찰

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소수의 선행 연구 결과만으로는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Barber 등, 2002). 우선,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지각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심리통제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e.g., Barber, 1996; Best 등, 1997),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e.g., Bronstein, 1994), 남아와 여아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e.g., Kuczynski & Kochanska, 1995; Mantzicopoulos & Oh-Hwang, 1998)가 모두 있어 일관된 경향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발달이나 행동문제 간 관계에 대한 아동의 성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심리통제 지각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보다 더 부족하다. 이에 관한 극소수의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Herman 등, 1997)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심리통제가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Pettit & Laird, 2002)도 있다.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발달 및 행동문제 간 관계가 아동의 성에 의해 중재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들과 관련지어 볼 때 흥미로운 연구 문제로 생각된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아는 남아보다 어머니와 심리적 유대가 돈독하며 정서적 친밀도가 높아 개인적인 문제를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상의하는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한 개방 정도가 높다는 보고(Youniss & Smollar, 1985)가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어머니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개

입하고 조절하며 아동의 자아를 통제하려하는 심리통제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지각하는 정도에 성차가 있는지,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 더불어 아동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 관계를 중재할 가능성이 있는 변수로 또래수용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또래수용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인으로서 아동의 외현화 및 내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적응까지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 되어왔다(정선진·이은해·고윤주·김영신, 2001; 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Ladd & Troop-Gordon, 2003; Parker & Asher, 1987). 또래수용도는 아동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또래집단에 의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받아들여지는 정도로서, 아동이 심리적 지지를 얻고 사회적 자신감을 기르며 자존감을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높은 심리통제를 경험하여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제한받고 자기표현의 기회가 적더라도 또래집단에 수용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등 행동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이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개념

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보고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가 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심리통제에 대해 스스로 보고한 바를 분석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해 지각한 바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동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Grych, Seid, & Fincham, 1992). 이는 인간발달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 개개인이 의미있게 느끼는 요인이라는 Bronfenbrenner(1979)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로 정의하여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학령기 후반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으로 하였는데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지각이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개인적 영역인 심리적, 정서적 경험에 대해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조정하려 하거나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제하고 아동이 자기 생활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시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Smetana & Daddis, 2002),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거나 자신을 독립적이며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의 관점을 발달시켜 독자적인 판단력을 기르는데 지장을 받는 상황이 된다(Morris 등, 2002). 그런데 학령기 후반은 청년기로 들어서는 과도기로서 아동이 자

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며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통해 건강하고 현실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때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통제하려 하는 것은 아동이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아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Steinberg, 2002) 부모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학령기 후반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 지각 정도가 다른지를 고찰하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 관계에 대해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가 중재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행동문제(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가?

<연구문제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의해 중재되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의해 중재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동 272명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 인원 구성은 남아가 149명(54.8%), 여아가 123명(45.2%)이었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척도, 또래수용도 척도,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척도였다.

####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이 어머니가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ber (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심리통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통제 개념의 구성 요인인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안정, 죄책감 유발 등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조금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6점부터 48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제한하며 개인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을 막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곤 한다.', '우리 어머니는 가족의 문제가 내 탓이라고 하신다.' 등

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7이었다.

#### 2) 우울

아동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CES-DC)(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을 정안숙(2003)의 번안을 참고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임상적 상황에서 우울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았다.', '울고 싶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3) 불안

아동의 불안은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를 번안한 K-CBCL(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 1997)의 불안/우울 척도 문항 중 하은혜 · 이수정 · 오경자 · 홍강의(1998) 연구와 한미현, 유안진(1995)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7문항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측정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7점부터 21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지나치게 겁

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70이었다.

#### 4) 위축

아동의 위축은 K-CBCL(오경자 외, 1997)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점부터 18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나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 ‘나는 수줍어한다.’ 등이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9이었다.

#### 5)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은 K-CBCL(오경자 외, 1997)의 공격성 척도에서 소란/방해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하은혜 외, 1998)을 제외하고, 한미현, 유안진(1995)을 참고로 하여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므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0점부터 3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나는 남에게 못되게 군다.’, ‘나는 다른 아이를 치거나 때린다.’ 등이다.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 6) 또래수용도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도는 Seidman, Chesir-

Teran, Friedman, Yoshikawa, Allen, Roberts, & Aber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3문항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점부터 9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 아동들에게 또래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내용은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낸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 1) 연구절차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조사 대상 초등학교 2개교의 6학년 8학급 교실에서 질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초등학교에는 사전에 자료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 질문지는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상세히 설명 받아 숙지한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급의 자유활동 시간에 아동들에게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고 연구자가 수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274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272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고찰을 위한 분석 이전에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분석은 심리통제,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또래수용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고찰을 위한 분석으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 1을 고찰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2를 고찰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이나 또래수용도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를 고찰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별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또래수용도에 관한 기술 통계치

| 변 수   | 성별(n)  | 평 균   | 표준편차  |
|-------|--------|-------|-------|
| 심리통제  | 남(146) | 22.60 | 3.97  |
|       | 여(122) | 22.44 | 4.84  |
| 우 울   | 남(149) | 36.95 | 10.64 |
|       | 여(123) | 40.07 | 11.29 |
| 불 안   | 남(148) | 6.57  | 1.95  |
|       | 여(123) | 7.06  | 2.05  |
| 위 축   | 남(148) | 9.40  | 2.75  |
|       | 여(123) | 9.50  | 2.37  |
| 공 격 성 | 남(148) | 14.24 | 2.72  |
|       | 여(123) | 13.71 | 2.75  |
| 또래수용도 | 남(148) | 10.36 | 2.72  |
|       | 여(123) | 10.54 | 2.91  |

연구문제 별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우울( $r=.30, p<.01$ ), 불안( $r=.29, p<.01$ ), 위축( $r=.26, p<.01$ ), 공격성( $r=.26, p<.01$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이 높았다.

<표 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r$ )

|         | 1     | 2     | 3     | 4     | 5 |
|---------|-------|-------|-------|-------|---|
| 1. 심리통제 |       |       |       |       |   |
| 2. 우울   | .30** |       |       |       |   |
| 3. 불안   | .29** | .66** |       |       |   |
| 4. 위축   | .26** | .52** | .62** |       |   |
| 5. 공격성  | .26** | .27** | .26** | .22** |   |

\*\* $p<.01$

#### 2. 아동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 지각

아동이 성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 정도를 다르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해 남아 집단(평균=22.60)과 여아 집단(평균=22.44)의 지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 관계에서의 성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성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을 각각 예측하는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은 남아는 1, 여아는 0으로 더미(dummy)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각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우선,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모두 아동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아동의 성과 어머니의 심리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우

<표 3> 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β    | t       |
|---------------------------|-------|-----------------|------|---------|
| 1단계 (R <sup>2</sup> =.11) |       |                 |      |         |
| 성                         | -3.16 | 1.28            | -.14 | -2.46*  |
| 심리통제                      | .75   | .15             | .30  | 5.13*** |
| 2단계 (R <sup>2</sup> =.11) |       |                 |      |         |
| 성                         | -3.17 | 1.28            | -.14 | -2.47*  |
| 심리통제                      | .61   | .20             | .24  | 3.10**  |
| 성×심리통제                    | .32   | .29             | .08  | .28     |

\*p<.05 \*\*p<.01 \*\*\*p<.001

울 정도가 높으며,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도 높았지만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간 관계가 아동의 성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재되지는 않았다.

아동의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의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고,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불안 정도도 높았지만 아동의 성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불안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재하지는 않았다.

<표 4> 아동의 불안에 대한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β    | t       |
|---------------------------|------|-----------------|------|---------|
| 1단계 (R <sup>2</sup> =.10) |      |                 |      |         |
| 성                         | -.51 | .24             | -.13 | -2.16*  |
| 심리통제                      | .14  | .03             | .30  | 5.07*** |
| 2단계 (R <sup>2</sup> =.11) |      |                 |      |         |
| 성                         | -.51 | .24             | -.13 | -2.17*  |
| 심리통제                      | .11  | .04             | .28  | 3.02**  |
| 성×심리통제                    | .06  | .06             | .09  | 1.13    |

\*p<.05 \*\*p<.01 \*\*\*p<.001

아동의 위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위축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아동의 성이나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

<표 5> 아동의 위축에 대한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β    | t       |
|---------------------------|------|-----------------|------|---------|
| 1단계 (R <sup>2</sup> =.07) |      |                 |      |         |
| 성                         | -.08 | .31             | -.02 | -.24    |
| 심리통제                      | .15  | .04             | .26  | 4.34*** |
| 2단계 (R <sup>2</sup> =.07) |      |                 |      |         |
| 성                         | -.07 | .31             | -.02 | -.25    |
| 심리통제                      | .13  | .05             | .22  | 2.69**  |
| 성×심리통제                    | .06  | .07             | .07  | .81     |

\*\*p<.01 \*\*\*p<.001

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위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위축 정도도 높았으나 아동의 성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위축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재하지는 않았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위축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는 아동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아동의 성이나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었다. 즉, 아동의 성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재하지는 않았다.

아동의 성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지를 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이상과 같이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더라도 전반적인 경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표 6>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상호작용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β   | t       |
|---------------------------|-----|-----------------|-----|---------|
| 1단계 (R <sup>2</sup> =.07) |     |                 |     |         |
| 성                         | .52 | .33             | .09 | 1.58    |
| 심리통제                      | .16 | .04             | .25 | 4.29*** |
| 2단계 (R <sup>2</sup> =.08) |     |                 |     |         |
| 성                         | .51 | .33             | .09 | 1.57    |
| 심리통제                      | .14 | .05             | .22 | 2.70**  |
| 성×심리통제                    | .06 | .08             | .06 | .74     |

\*\*p<.01 \*\*\*p<.001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각각 산출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통제와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간의 상관관계수가 대체로 여아보다는 남아 집단에서 높았다.

<표 7>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r) 성별 비교

|      | 우울    |       | 불안    |       | 위축    |       | 공격성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심리통제 | .35** | .26** | .35** | .25** | .27** | .26** | .28** | .24** |

\*\*p<.01

#### 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또래수용도의 중재 효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및 아동이 지각한 어머

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여기에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을 추가하였다.

<표 8> 아동의 우울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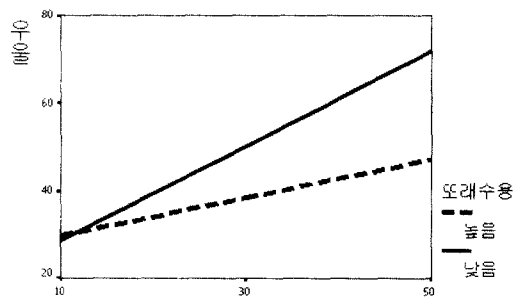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β    | t        |
|---------------------------|-------|-----------------|------|----------|
| 1단계 (R <sup>2</sup> =.25) |       |                 |      |          |
| 성                         | -3.36 | 1.18            | -.15 | -2.85**  |
| 심리통제                      | .72   | .13             | .29  | 5.37***  |
| 또래수용도                     | -1.47 | .21             | -.38 | -7.12*** |
| 2단계 (R <sup>2</sup> =.28) |       |                 |      |          |
| 성                         | -3.54 | 1.16            | -.16 | -3.04**  |
| 심리통제                      | .75   | .13             | .30  | 5.66***  |
| 또래수용도                     | -1.43 | .20             | -.37 | -7.02*** |
| 심리통제 × 또래수용도              | -.13  | .04             | -.16 | -2.96**  |

\*\*p<.01 \*\*\*p<.001

우선, 우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성,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모두 아동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며,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수용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분석 2단계에서 추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우울에 대한 설명력(R<sup>2</sup>)가 .25에서

.28로 유의하게(p<.01) 증가했다.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이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수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iken과 West (1991)의 지침에 따라 또래수용도가 높은 집단을 또래수용도의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높은 값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값을 갖는 아동들의 집단으로 하고 또래수용도가 낮은 집단은 또래수용도의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낮은 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을 갖는 아동들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두 집단 각각에 대해 심리통제와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이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독립변수로 하여 아동의 우울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회귀계수인 β를 산출하여 비교함으로써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수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심리통제

<그림 1> 또래수용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간 관계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수용도를 높게 지각한 아동 집단(β=.19, p<.05)이 낮게 지

각한 아동 집단( $\beta=.44, p<.001$ )보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아동의 불안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beta$ | t        |
|---------------------|------|-----------------|---------|----------|
| 1단계 ( $R^2=.17$ )   |      |                 |         |          |
| 성                   | -.56 | .23             | -.14    | -2.44**  |
| 심리통제                | .13  | .03             | .29     | 5.16***  |
| 또래수용도               | -.18 | .04             | -.26    | -4.58*** |
| 2단계 ( $R^2 = .18$ ) |      |                 |         |          |
| 성                   | -.58 | .23             | -.14    | -2.54**  |
| 심리통제                | .14  | .03             | .30     | 5.29***  |
| 또래수용도               | -.18 | .04             | -.25    | -4.48*** |
| 심리통제×또래수용도          | -.01 | .01             | -.10    | -1.69    |

\*\* $p<.01$  \*\*\* $p<.001$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모두 아동의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며,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수용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불안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은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었다. 즉, 또래수용도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불안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재하는 변수는 아니었다.

아동의 위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불안에 대한 결과와 유사했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모두 아동의 위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

<표 10> 아동의 위축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beta$ | t        |
|---------------------|------|-----------------|---------|----------|
| 1단계 ( $R^2 = .18$ ) |      |                 |         |          |
| 성                   | -.14 | .29             | -.03    | -.47     |
| 심리통제                | .15  | .03             | .25     | 4.48***  |
| 또래수용도               | -.32 | .05             | -.35    | -6.34*** |
| 2단계 ( $R^2 = .18$ ) |      |                 |         |          |
| 성                   | -.16 | .29             | -.03    | -.54     |
| 심리통제                | .15  | .03             | .25     | 4.57***  |
| 또래수용도               | -.32 | .05             | -.35    | -6.25*** |
| 심리통제×또래수용도          | -.01 | .01             | -.07    | -1.31    |

\*\*\* $p<.001$

으로 나타나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수용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위축 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은 위축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즉, 또래수용도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위축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재하는 변수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모두 아동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수용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의 상호작용도 아동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의 추가로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 $R^2$ )가 .10에서 .12로 유의하게 ( $p<.05$ )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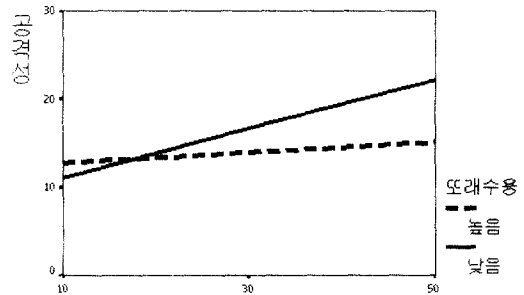
가했다. 이 결과는 아동의 또래수용도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유의한 수준에서 중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1〉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 또래수용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또래수용도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 독립변수                | B    | SE <sub>B</sub> | $\beta$ | t       |
|---------------------|------|-----------------|---------|---------|
| 1단계 ( $R^2 = .10$ ) |      |                 |         |         |
| 성                   | .46  | .32             | .08     | 1.43    |
| 심리통제                | .16  | .04             | .26     | 4.52*** |
| 또래수용도               | -.16 | .06             | -.17    | -2.89** |
| 2단계 ( $R^2 = .12$ ) |      |                 |         |         |
| 성                   | .42  | .32             | .08     | 1.31    |
| 심리통제                | .17  | .04             | .26     | 4.52*** |
| 또래수용도               | -.15 | .06             | -.16    | -2.74** |
| 심리통제×또래수용도          | .03  | .01             | -.15    | -2.50*  |

\* $p < .05$  \*\* $p < .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가 또래수용도에 의해 중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수용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심리통제와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또래수용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대해 각각 작성해 보았다. 우울에 대한 고찰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래수용도가 높은 집단은 또래수용도의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높은 값을 갖는 아동을 또래수용도가 높은 집단으로 하고, 또래수용도가 낮은 집단은 또래수용도의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낮은 값을 갖는 아동들의 집단으로 하였다. 이 두 집단에 대해



어머니의 심리통제  
〈그림 2〉 또래수용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

각각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독립변수로 하여 아동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회귀계수인  $\beta$  값을 산출하여 비교해보았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수용도가 낮은 집단( $\beta = .40, p < .001$ )에서만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수용도가 높은 집단( $\beta = .11, n.s.$ )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수용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또래수용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이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인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지,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이나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따라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이 다른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이러한 행동문제를 더 높은 정도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우울, 불안, 위축 등 내현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Chapell & Overton, 1998; Conger 등, 1997; Mills & Rubin, 1998) 및 비행 행동이나 공격성 등 외현화 행동문제 정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Barber & Olsen, 1997; Hart 등, 1998)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과 같은 행동문제의 관련 요인인 것으로 알려진 낮은 자아개념, 낮은 학업성취, 섭식장애, 부정적 정서 성향이 부모의 심리통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Conger 등, 1997; Garber 등, 1997; Gottman 등, 1997; Jensen, 1997)와 관련지어 보아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개념의 타당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심리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내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행동통제와는 다른 개념임을 이해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영역에서 통제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런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Barber, 1996)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성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 본 연구문제 2의 고찰 결과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남녀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통제 지각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방식, 친밀도, 개인적 이슈에 대한 개방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론(Youniss & Smollar, 1985)과 관련지어 볼 때 의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통제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본 연구(Mantzicopoulos 등, 1998)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경우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를 볼 때 이것이 한국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의 심리통제를 지각하는데 있어서의 특성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통제에 대한 남녀 아동의 지각 차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보다 축적되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아동의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Herman 등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심리통제가 남아보다 여아의 비행, 불안,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Pettit 등, 2001)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수의 선행연구 중 성차를 발견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전반적인 성차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남아와 여아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남아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수가 여아 집단에서보다 대체로 높았다. 그러나 남아 집단과 여아 집단의 상관관계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는 미흡한 결과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나 상호작용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발달 및 적응 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나 적응간의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행동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또래수용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집단은 낮게 지각하는 아동집단보다 우울이나 공격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았는데 아동의 불안이나 위축에 대한 분석에서는 또래수용도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집단과 낮게 지각하는 아동집단이 어머니의 심리통제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보다 낮은 아동에게서 강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부정적인 자녀양육 방식이 아동의 우울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가족이나 또래의 지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김애경, 2002; Lansford, Criss, Pettit, Dodge, & Bates, 2003)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와 또래가 상호보완적이어서 어느 한 쪽의 기능이 부정적일 때도 다른 쪽의 기능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동을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과도한 개입이나 통제 시도로 인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일지라도 또래 집단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수용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가 증가되지는 않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불안이나 위축간의 관계는 아동의 또래수용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불안과 위축 정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또래수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또래수용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 하는 것이 아동의 특성을 변별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 자료이므로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에 나타난 유의한 관계는 아동이 어

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통제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선형적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행동통제와 비교했을 때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행동통제가 과도한 경우도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비선형적 모델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여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심리통제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심리통제 행동을 어머니와 아동이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는지,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다르게 관련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부모의 심리통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보다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어머니의 심리통제에 대해서만 고찰하였다. 그런데,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성차는 자녀의 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Youniss & Smollar, 1985)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부모의 성과 아동의 성에 따라 부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애경(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도현심(1996). 부모의 온정성 및 통제성과 아동의 외로움. *대한가정학회지*, 34(6), 1-11.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선진 · 이은혜 · 고윤주 · 김영신(2001). 학령기 행동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22(3), 91-106.
- 정안숙(2003). 가족 및 또래관계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반사회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혜 · 이수정 · 오경자 · 홍강의(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 청소년정신의학*, 9, 3-12.
- 한미현 ·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 Sage.
- Barber, B. K.(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sycho-



- logical control.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 Harmon, E.(2002). Violating the self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Barber, B. K., & Olsen, J. A.(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87-315.
- Barber, B. K., Olsen, J. A., & Shagle, S. C.(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 43-88.
- Baumrind, D.(1989). Rearing competent children. In W. Damon(Ed.), *Child development today and tomorrow*(pp. 349-378). San Francisco: Jossey-Bass.
- Best, K. M., Hauser, S. T., & Allen, J. P.(1997). Predicting young adult competencies: Adolescent era parent and individual influenc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90-112.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stein, P.(1994). Pattern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Mexican famil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 441-454.
- Chapell, M. S., & Overton, W. F.(1998). Development of logical reasoning in the context of parental style and test anxiety. *Merrill-Palmer Quarterly*, 44, 141-156.
- Conger, K. J., Conger, R. D., & Scaramella, L. V. (1997). Parents siblings,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13-138.
- Darling, N., & Steinberg, L.(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1799-1813.
- Eccles, J. S., Early, E., Frasier, K., Belansky, E., & McCarthy, K.(1997). The relation of connection, regulation, and support for autonomy to adolescents'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63-286.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2-33.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 Erlbaum.
- Gray, M. R., & Steinberg, L.(1999). Unpacking authoritative parenting: Reassessing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74-587.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erman, M. R., Dornbusch, S. M., Herron, M. C., & Herting, J. R.(1997). The influence of family regulation, connection, and psychological autonomy on six measures of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34-67.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Jensen, B. S.(1997). *Family interaction and adolescent female eating disorders: An analysi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level correlat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ology,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 Kuczynski, L., & Kochanska, G.(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Child Development*, 66, 616-628.
- Ladd, G. W., & Troop-Gordon, W.(2003). The role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 1344-1367.
- Lansford, J. E., Criss, M. M.,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2003). Friendship quality, peer group affiliation, and peer antisocial behavior as moderators of the link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 161-184.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Series Ed.) and Me. E.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 1-101). New York: Wiley.
- Mantzicopoulos, P. Y., & Oh-Hwang, Y.(1998).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maturity to parenting quality and intellectual ability for American and Korean adolesc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3, 195-206.
- Mills, R. S. L., & Rubin, K. H.(1998). Are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s*, 30, 132-136.
- Morris, A.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Silk, J., & Essex, M.(2002). Measuring children's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control : Developmental and conceptual consideration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pp. 125-160).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arker, J.,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ttit, G. S., & Laird, R. D.(2002).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in early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and earlier child adjustment. In B. K. Barber(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Criss, M. M.(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 583-598.
- Rubin, K. H., & Mills, R. S. L.(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300-317.
- Schaefer, E. S.(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eidman, E., Chesir-Teran, D., Friedman, J. L., Yoshikawa, H., Allen, L., Roberts, A., & Aber, J. L.(1999). The risk and protective functions of

- perceiv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s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11-237.
- Siqueland, L., Kendall, P. C., & Steinberg, L.(1996). Anxiety in children: Perceived family environments and observed family interac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 225-237.
- Smetana, J. G., & Daddis, C.(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 563-580.
- Steinberg, L.(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19.
- Steinberg, L.(2002). *Adolescence*.(6th ed.). Boston : McGraw-Hill.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1980). Children's symptoms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s*, 168, 736-740.
- Youniss, J., &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Press.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2일 채택